



부산KTF 선수들이 29일 울산모비스를 74-66으로 물리쳐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기뻐하고 있다.

울산/윤창원기자 skynamoo@

KTF “내일 7차전서 끝장”

맥기·송영진 36점 V합작… 챔피언전 ‘3승3패’ 승부원점

울산지역 낮 최고 온도는 26도였지만 울산 동천체육관은 만원 관중(7214명)들의 열기가 더해지면서 더욱 후끈 달아올랐다. 그리고 부산 KTF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면서 챔피언전의 열기는 극에 달했다.

부산 KTF가 29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벌어진 2006~2007 현대 모비스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6차전에서 골밑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애런 맥기(23점 6리바운드)와 부상 투혼을 펼친 송영진(13점 4리바운드)을 앞세워 74-66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7전4선승제의 챔피언전 승부에서 3승3패로 모비스와 동률을 만들어낸 KTF는 최종 7차전(1일

오후 6시)까지 승부를 끌고가는 데 성공했다.

“챔피언전다운 플레이는 나오지 않았다”는 KTF 추일승 감독의 말처럼, 양팀 모두 힘겹게 경기를 풀어가며 승부는 좀처럼 기울지 않았다. 그러나 KTF는 허리 부상으로 4차전에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자청하고 나선 송영진, 주장으로서 투지를 불사르는 수비를 선보이며 동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김희선 등 식스맨들의 활약으로 근소한 점수차로나마 꾸준히 리드를 잡았다.

승부처는 4쿼터였다. KTF는 56-53으로 앞선 4쿼터 시작 1분43초 만에 모비스의 크리스 윌리엄스(2

1점 12리바운드)를 잘 막아내던 맥기가 파울트러블에 걸리면서 위기를 맞았다. 맥기가 파울트러블로 인해 수비에서 다소 주춤거리자 윌리엄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골밑을 돌파, 결국 KTF는 4쿼터 5분여를 남기고 59-58로 쫓겼다.

위기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것은 맥기였다. 맥기는 송곳 어시스트로 필립 리치(13점 9리바운드)의 골밑슛을 만들어내는 등 리치와 골밑을 장악, 경기종료 2분42초 전 점수를 67-59까지 벌려냈다. 경기종료 2분 전에는 승부에 썩기를 박는 시원한 3점포까지 날려 KTF의 승리에 마침표를 찍어냈다.

울산/박지은기자 nocutsports@

신기성 “막내 성민이 위해 기필코 우승해야죠”

KTF선수들 “조성민 부모 영전에 V컵 바치자” 결의

“우리 선수들, (조)성민이를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마지막 게임, 반드시 이겨서 성민이가 부모님 영전에 우승을 바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벼랑 끝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부산 KTF의 포인트가드 신기성이 밝힌 우승 이유다.

신기성은 29일 울산 모비스와의 챔피언결정전 6차전에서 승리한 직후, KTF가 반드시 우승해야만 하는 이유를 막내 ‘조성민’으로 밝혔다.

KTF의 신인 조성민(24)은 지난해 9월 부모님을 잃었다. 조성민이 생애 처음으로 간 미국 전지훈련지에서 떠돌고 있을 때, 조성민의 부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사망했고, 아버지도 다음달 세상을 떠났다.

조성민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성민이가 팀 훈련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 사고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했고, 결국 조성민은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못했다. 그가 전지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환한 웃음으로 맞이하던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이를 악물었다. 비록 경기장에서 그를 지켜볼 부모는 없지만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멋진 모습을 보여겠다”는 마음으로 뛰고 또 뛰었다.

이날도 조성민은 양동근을 상대로 기죽지 않는 끈질긴 수비를 펼쳤고, 부상으로 코트를 떠난 4쿼터 초반까지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조성민은 이번 시즌 종료 후



KTF 신기성이 승리를 확정짓는 슛을 성공시킨 뒤 좋아하고 있다. 뉴시스

국군체육부대에 입대한다. 조성민은 아들 걱정에 눈도 제대로 감지 못했을 부모 영전에 챔피언 반지를 놓고 군입대 하길 바란다. 그리고 신기성을 비롯해 KTF 선수들 모두가 조성민과 같은 마음이다. 울산/박지은기자

저출산 해결법은 월드컵

작년 6월 월드컵 성공후 독일 출생률 30% 늘어
클린스만 감독 이름따 ‘클린시 세대’ 신조어도

독일 정치인들은 수년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써왔다. 그러나 이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해답이 양육비 지원이나 학교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라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가디언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독일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래 현재 독일에서는 베이비붐이 일어 조산원들이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독일의 디 사이트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독일 일부지역에서 지난달 출생률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30%가 늘어났다.

이 같은 증가 수치는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약 1.4명을 기록해 유럽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독일에서 일어나 독일 정치가들로부터 탄성이 터져나오도록 만들고 있다.

오늘날 베이비붐을 타고 탄생한 아기들은 작년 월드컵에서 독일팀 감독을 맡아 3위를 차지하게 만든 유르겐 클린스만의 이름을 따 클린시(Klinsi) 세대라고 불리고 있다.

조산원과 산부인과들을 조사한 디 사이트는 브레멘에서 29%, 쾰른에서는 28%의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독일 전역에 걸친 집계는 내년 연방통계국에 의한 자료수집이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이 같은 출산율 증가 추세는 분명하다.



울통볼통 그녀 29일 오후 경기 수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42회 미스터경기 선발대회 여자부에 출전한 선수들이 아름다운 근육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남·대구 ‘시민구단의 힘’

서울·포항 나란히 제압 무서운 상승세

● 경남 3-0 서울

프로축구 경남FC와 대구FC가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시민구단의 힘을 톡톡히 보여주었다.

경남은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삼성하우젠 K-리그 2007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2골을 넣은 까보레와 수비진의 안정된 플레이에 힘입어 3-0의 예상외의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경남은 최근 이어오던 2연패 및 2경기 연속 무득점의 부진을 깨끗이 씻어내고 3승2무3패 승점 11점을 기록하며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 대구 3-1 포항

대구FC는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포항 스틸러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전반 10분 문주원의 선제골과 후반 12분과 17분 터진 이근호 연속골로 3-1 승리를 거뒀다.

대구시는 최근 원정경기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3승2무3패 승점 11점을 기록

해 선두권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포항의 김기동은 이날 통산 402경기 출전을 기록해 K-리그 최다출장 2위 기록을 세웠다. 그는 전반 29분에는 0-1로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기록하며 노익장을 과시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 울산 2-2 전남

울산 현대는 홈구장인 울산문수구장에서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나돌고 있는 이천수가 전반 10분 선제골을 기록하고 양동현이 후반 17분 결승골을 넣어 전남 드래곤즈에 승리를 거두는 듯했으나 후반 20분 산드로의 추격골과 추가시간 3분에 터진 김진규의 극적인 헤딩 동점골로 아쉬운 2-2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1점을 추가하는 데 만족했다.

● 성남 0-0 대전

성남일화는 성남탄천운동장에서 열린 대전시청과의 홈경기에서 득점없이 비겨 리그 선두와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